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¹⁾

권정아²⁾ · 이동근³⁾ · 최재용⁴⁾

²⁾상명대학교 대학원 · ³⁾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Indicators for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Rural Community Planning¹⁾

Jeong-Ah Kwon²⁾, Dong-Kun Lee³⁾ and Jae-Yong Choi⁴⁾

²⁾Graduate School,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³⁾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⁴⁾Korea Environment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dapt indicators for the rural community assessment. Bearing in mind, indicators are derived from the various 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and the efficiency of the indicators has been tested through comparing and evaluating 3 different rural communities which was selected based on their distance from Seoul.

In order to assess a rural development project, the assessment indicators should include at least 5 domains of natural environment, socio-economic,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community characteristics, public participation, which are the basic formation of indicators of this study. Furthermore, this approach could be a ground for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rural development planning.

Key words : *Environmentally friendly, Indicators, Rural communities, Evaluating rural communities*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에서 우선 「환경친화」라 하는 것은 환경파괴로 인해 인간에게 미치는 악순환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간이 속해있는 생태계의 순환을 보전시킴으로서

현세대의 개발이 미래세대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Our common future, 1987 ; 건설교통부, 1996)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농촌사업을 보면 1970년대의 새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1990년대 초부터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현대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소득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함으로써 소득과 생활이 조화된 활력있는 미래지향적 농촌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김귀곤, 1997).

¹⁾ 이 논문은 2000년도 농림부 용역과제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및 지역특성의 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2000년대에는 생태계보전을 기본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재정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 되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농촌개발사업들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될 평가지표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하여 먼저 국내·외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지표들의 검토를 통하여 농촌에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의 틀을 구축하고, 그 평가지표에 의해 국내의 문화마을을 비교·평가해 봄으로서 평가지표체계의 유효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1. 연구의 범위

1.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서는 우선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론들을 검토하여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구축된 평가체계를 통하여 문화마을을 평가하였다. 평가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의 유형화에 따라 선정된 사례지에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설정된 평가지표의 항목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를 사례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개선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양평군 용문면, 단양군 대강면, 영암군 군서면의 3지역으로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1)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체계 구축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의 틀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농촌개발을 위한 지표의 축을 도출하였다. 이는 농촌개발사업의 현 시점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설정이므로 상태지표(State)를 중심으로 하위평가항목을

도출하여 평가지표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평가지표체계는 유형별 농촌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작성의 중심 틀로서 활용하였다.

(2) 농촌의 유형화

농촌을 유형화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농촌개발방식이 현재의 농촌문제점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가설에서 기인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대도시로의 정치·경제·행정의 모든 부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리적 특성에 따라 농촌을 유형화하여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의 메리트를 살리면서 고차적인 도시기능의 매력을 수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모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광역적인 생활망을 산업, 정보, 문화, 교육, 의료, 복지, 레크레이션 등의 종합적 측면으로부터 일체적인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武内, 1996).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와의 지리적 관계성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고자 서울과 인접한 광역도시로 부터의 거리를 산정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Road Pivot 2000」에 의해 자동차 이용시의 최단거리와 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프로그램 SAS에 의해 군집분석을 하여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방법은 전국 133개의 문화마을 조성 실시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의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서울과 인접한 광역도시로부터의 시간과 거리를 산정하였으며, 농촌의 유형화를 위한 거리산정시 출발점은 서울 종각, 광역도시 중앙역으로 설정하였고, 종착점은 해당면의 면사무소로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시 우선 거리를 표준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농촌을 유형화하였으며, 군집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Ward's Method(와드의 방법)을 통하여 총 군집 내 (제곱)거리의 오차제곱합을 최소화하도록 군집끼리 합병하는 방법으로 농촌을 유형화하였다.

(3) 농촌의 유형화를 접목시킨 평가지표체계의 적용성 검증

본 연구에서 구축된 평가지표체계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농촌의 유형화를 접목시

켜 사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문화마을 내의 거주주민 총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지는 유형별로 분류된 문화마을 군집 내 조성이 완료되어 정주생활권이 안정된 지역을 하나씩 선정하였다. 문화마을에서는 마을 내 입주세대가 적은 관계로 가능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대일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및 소득 환경에 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해 「만족」을 100점, 「조금만족」을 75점, 「어느 쪽도 아님」을 50점, 「조금불만」을 25점, 「불만」을 0점으로 하는 등간척도의 평점으로 변환하여 항목별로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또한, 개선도 평가를 위해서는 척도를 2점, 1점, 0점, -1점, -2점으로 변환하여 위의 만족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A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집단간의 동일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의식조사의 내용은 크게 개선도와 만족

도에 관한 질문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평가지표의 틀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지역 특성개발, 주민참여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유형별 문화마을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II. 결과 및 고찰

1.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체계

우선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의 틀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연구되었던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건설교통부, 1997)의 지속성 평가지표, 어메니티 플랜(경기개발연구원, 1998; 성현찬, 1995)의 어메니티 지표, 環境時代の農村整備-エコビレッジの提案(武内, 1996)에의 Eco-Village = Ecology + Economy 라는 생태계와 소득환경개선의 조화를 강조했던 이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에 관한 연구(이동근·윤소원, 1998)의 지표체계도 등의 이론을 검토하여 5개의 지표 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OECD의 PSR구조와 UNCSD의 DSR구조를 바탕으로 이·윤(1998)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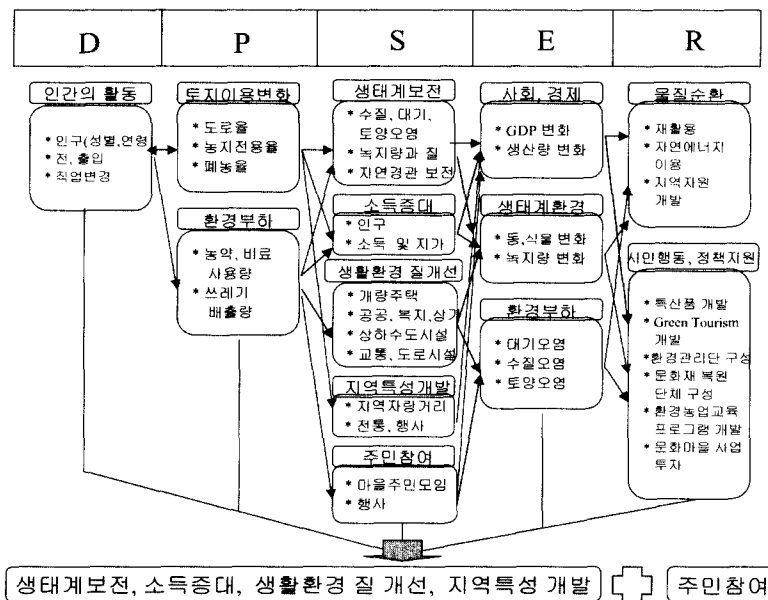


그림 1. DPSEER구조를 적용한 하위평가지표항목 도출과정

서 연구된 DPSE 「구동력지표(Driving Force), 압력지표(Pressure), 상태지표(State), 영향지표(Effect), 대응지표(Response)」구조에 적용하되, 현재의 농촌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구축을 위하여 상태지표(State)를 중심으로 하위 평가항목들을 도출하였다(그림 1). 본 연구에서 도출된 5개의 축은 생태계보전과 생활환경 질 개선, 소득증대, 지역특성 개발, 주민참여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초하여 하위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즉 생태계보전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수질, 대기, 토양, 녹지의 양과 질, 자연경관의 보전으로, 소득증대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인구의 변화 소득 및 지가(땅값)의 변화로 설정하였으며, 생활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개량주택, 교통, 공공·복지 시설, 상가,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에 관한 항목으로 정하였다. 지역특성개발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지역의 자랑거리 및 전통·행사에 관한 항목으로 하였으며 주민참여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마을주민의 모임 및 행사에 관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생태계 보전을 기본 목표로 하여 환경부하를 감소시키고 각종 환경오염과 농업취업자수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생산성의 저하를 감안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것이다. 또한, 농촌생활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의 자연경관을 살려 도시민들의 유입을 피하거나, 주말농장이나 농작물의 직거래 등을 통하여 농촌경제의 소득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며, 소득환경의 개선은 감소하고 있는 농촌의 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함이다.

더불어, 문화·교육기반이나 생활시설기반의 낙후로 인해 저하된 생활환경을 공공기관이나 의료·문화시설 기반을 정비·구축하고, 각 가정의 상·하수도 정비를 실시하며 인근의 하천 및 호수의 수질개선 등의 사업으로 질적인 향상을 피하여 농촌의 정주생활권에 대한 자부심을 증진시키고, 그 지역별 지니고 있는 특성을 살려 지역자원을 보전하며 문화재 및 지역의 자랑거리를 복원·조성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피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지표의 축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도모되고 지역의 레크리에이션을 장려하여 지역주민들간의 유대감을 증진시켜 도시민과의 교류추진을 위한 주민단체를 구성하여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피하고자 하였다.

2. 농촌의 유형화

농촌의 유형화 결과 세 군집으로 나뉘었으며(표 1), (표 2) 기준이 되는 제1축으로 서울을, 제2축으로 광역도시를 설정하였다. 제1군집은 서울과 광역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집단으로서

표 1. 도시로부터의 거리 및 군집분석의 결과(일부예시)

(최단거리적용, 단위(km))

사업추진 연도	도명	시(군), 면명	서울부터의 거리	시간	인접 광역도시	광역도시로부터의 거리	시간	Cluster
2000	경기	남양주 진건	22.4	0.54	서울	22.4	0.54	1
1992	경기	양평 용문면	62.7	1.44	서울	62.7	1.44	1
1994	강원	철원 서면	84.4	2.28	서울	84.4	2.28	1
1991	충남	공주 계룡	144.8	2.39	대전	39.3	1.22	1
1996	충북	제천 청풍	165.1	4.32	대전	141.8	3.44	2
1992	충북	단양 대강	176.5	5.05	대전	149.5	4.21	2
2000	강원	인제 북면	168.9	4.24	서울	168.9	4.24	2
1997	경남	창녕 길곡	339.5	6.31	부산	63.9	1.19	3
1995	전남	영암 군서	342.4	6.41	광주	54.4	1.30	3
1995	경남	사천 사남	344.1	5.57	부산	112.6	2.11	3

표 2. SAS통계에 의한 Cluster분석결과

거리산정 출발점	지역수 (개)	평균(km)	표준편차	최소값(km)	최대값(km)	군집
서울 광역도시	41	117.0 55.4	45.1 18.9	22.4 21.4	187.1 92.8	1
서울 광역도시	28	171.4 147.5	45.2 44.4	99.0 98.7	267.8 267.8	2
서울 광역도시	64	281.1 71.2	58.1 28.2	191.0 18.7	423.1 153.3	3

울인접형농촌으로, 제2군집은 서울에서 중간거리 에 위치하나 광역도시로 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집단으로 서울근교형농촌으로, 제3 군집은 서울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집단 으로 중산간형농촌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한 사례지 선정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각각 군집에서 한 곳씩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례지는 서울인접형농촌으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문화마을, 서울 근교형농촌으로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문화마을, 중산간형 농촌으로 전남 영암군 군서면 호동리 문화마을이 선정되었다.

3. 평가지표체계와 유형화의 적용에 따른 문화 마을의 비교분석 결과

1) 만족도 분석결과

지역별 문화마을간의 만족도 분석결과 자연 환경의 경우 군서면이 만족도가 8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강면이 7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인접형인 대강면에서 도시적인 신정비형태와 기존마을의 구정비 형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해 불만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3).

이는 도시와의 원거리에 인접한 중산간형농

촌은 자연환경에 대하여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원거리라는 단점을 극복 하여 도시민을 유입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분산분석을 통해 유형별 지역간에 자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1% 이하의 유의적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생활환경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서울인접형 농촌인 용문면이 약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중산간형농촌인 군서면이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으나 빈도분석의 결과를 볼 때 용문면에서는 약 60%인 반면 군서면에서는 약 80%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의 응답은 용문에서 약 20% 이상인데 반해 군서면에서는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용문면에서 어느 쪽도 아님의 중간값이 군서면 보다 많았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서울근교형농촌인 대강면에서도 용문면과 비슷한 결과로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산분석의 결과 유형별 지역간에는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2), (표 3), 이로 판단할 때, 유형별 생활환경에 대한 차이는 없으므로 지리적 으로 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농촌의 경우에도

표 3. 지역별 만족도 평균 및 분산분석결과

구 분	용 문		대 강		군 서		분산분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Sum of square	P-value
자연 환경	76.2	24.4	73.3	27.9	89.7	22.3	5686.66	0.0030
생활 환경	83.1	17.9	77.8	19.4	71.3	34.3	2651.52	0.1055
사회,경제환경	57.1	23.0	37.8	29.0	49.2	29.8	8258.46	0.0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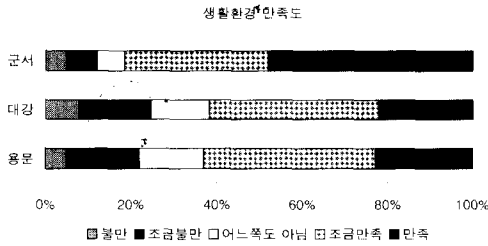


그림 2. 생활환경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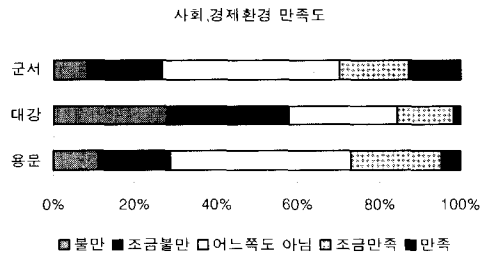


그림 3.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계획한다면 도시민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경제환경의 경우는 서울근교형 대강면이 37.8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빈도분석결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인식이 약 85%로 분석되었다. 용문면이 57.1점으로 군서면의 49.2점보다 대강면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용문면과 군서면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지역 모두 사회·경제환경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표 3). 이는 우선 현재 농촌개발사업에 있어서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해결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인접형의 도시적인 색채가 강한 용문면과 농촌특유의 색채가 강한 군서면의 만족도에 비하여 도시와 농촌의 색채가 혼재한 대강면의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확연히 낮은 것은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인 이질감이나 불만감이 팽배해진 결과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즉, 종합적으로 지역간의 각 환경별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대강면과 군서면간의 자연

환경의 만족도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생활환경에서는 지역간의 차이가 없었고, 사회·경제환경에서는 용문면과 대강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4), (표 5).

표 4. 지역별 자연환경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구분	용문	대강	군서
용문	-	-	-
대강			*
군서			

- 유의적 차이 없음,

* 5% 이내에서 유의적 차이 있음

표 5. 지역별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구분	용문	대강	군서
용문	-	*	-
대강			-
군서			

- 유의적 차이 없음,

* 5% 이내에서 유의적 차이 있음

2. 개선도 분석

개선도에 대한 평균분석결과 자연환경의 경우 하천·호수의 깨끗함의 항목에서는 용문면 -0.28점, 대강면 -0.09점, 군서면 0.47점으로 군서면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 나빠졌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표 6).

생활환경의 경우는 교통(배차시간, 대중교통) 및 도로시설(확장 및 개통)의 항목에서 모두 군서면이 0.71점과 1.88점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개선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도시인 접형의 농촌에서 교통이나 도로시설에 대한 개선도가 도시형태로 마을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 정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낮아졌고 또한, 타 도시로부터 이주해 온 주민이 군서면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군서면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상·하수도 시설의 항목에서 더 나빠졌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와 원거리에 인접한 중산간형농촌에서는 주택의 일부 개량이나 도로시설 등의 정비가 있을 뿐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

표 6.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평균분석 결과

전체 환경	구 분	용 문		대 강		군 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연 환경	하천, 호수의 깨끗함	-0.28	1.40	-0.09	1.40	0.47	1.40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0.19	1.14	-0.38	1.25	-0.06	1.18
	공기의 깨끗함	0.26	1.09	0.20	1.06	0.09	0.93
	토양의 양호함	0.07	0.74	-0.02	0.82	-0.15	1.21
	자연경관의 보전	1.00	1.00	1.09	1.08	0.50	1.19
생활 환경	개량주택	1.51	0.83	1.57	0.69	1.21	0.98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0.53	1.03	0.60	1.03	0.71	1.14
	공공시설	0.34	0.85	0.57	0.87	-0.03	0.90
	복지시설	0.56	0.76	0.61	0.63	0.00	0.91
	도시시설(확장, 개통)	1.21	0.91	1.31	0.82	1.88	0.33
	상,하수도 시설	1.35	0.81	0.78	1.08	-0.03	1.21
	상가 및 편의시설	0.36	0.69	0.36	0.75	-0.06	0.55
	쓰레기 처리	1.74	0.49	1.67	0.68	0.24	1.60
사회 경제 환경	마을의 인구	1.23	0.65	1.00	1.15	-1.09	1.08
	주민의 소득	0.16	0.87	-0.70	1.07	-0.18	1.03
	지가(땅값)	0.50	1.02	0.89	0.86	0.91	0.71
지역 특성	전통의 유지, 계승	1.19	1.10	1.08	0.95	0.80	1.36
	지역 특색의 활성화	0.09	0.91	-0.34	1.26	-0.81	1.18
주민 참여	마을주민의 참가정도	0.74	1.08	0.84	0.95	1.68	0.77
	문화마을 이후 모임활성화 정도	0.52	0.94	0.48	0.79	0.48	0.80

(음영처리 : 지역간 5% 이하의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음)

로 생각된다.

사회·경제환경에서는 주민의 소득의 개선도에 대한 항목에서는 지역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마을 조성이후 유형별 세 지역 모두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의 경우는 정비형에서 가장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대강, 용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와 인접한 서울인접형이나 서울근교형 농촌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많이 고려되지 못하고 도시적인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참여의 경우는 모임에 대한 참여도는 용문면에서 0.74점, 대강면이 0.95점, 군서면이 1.68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와 인접한 농촌일수록 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들간의 연대감이 중산간형 농촌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의 적용성을 검증해 보고자 실시하였다.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들을 검토하여 평가지표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평가지표를 현재 실시된 농촌사업(문화마을) 대상지에 적용하여 비교·평가해봄으로서 본 연구에서 구축된 평가지표체계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농촌사업(문화마을)평가에 있어서는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에 기인하여 농촌을 지리적 관계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이를 통하여 사례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례지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지를 통하여 주민의 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지표체계의 5개 축(생태계보전, 소득증대, 생활환경 질 개선, 지역특성

개발, 주민참여)을 중심으로 농촌유형별 농촌사업(지역별 문화마을간)을 비교·평가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의 농촌사업을 평가하는데 그 적용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평가지표에 적용시켰던 농촌의 유형화에 따른 평가방법에서 유형별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농촌계획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농촌사업(문화마을)의 평가결과 농촌계획은 농촌주민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도록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사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의 도입이 문화마을 정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토의되고 반영될 필요가 있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생태관광으로 특화시킬 수도 있고, 지역의 농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이 모든 것은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특히 도시와 인접한 농촌의 주민들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농촌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구축된 평가지표의 체계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관점에서 생태계의 보전을 바탕으로 한, 소득개선, 생활환경 질 개선, 지역특성개발, 주민참여의 5가지의 기본축을 바탕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농촌개발의 계획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의 사전적

인 검토가 실시되어야 함에 대한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V. 인용문헌

- 건설교통부. 1997.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1).
- 경기개발연구원. 1998. 어메니티 플랜.
- 김귀곤. 1997. 한국형 생태마을의 모형개발, 생태마을과 퍼머컬처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및 디자인 워크샵 : 111-143.
- 성현찬. 1995. 경기도 쾌적환경평가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윤소원 외. 1998. 국토학회, 제34권 제6호, 145-160.
- 이동근. 1997.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제 6권 제1호 : 67-76.
- 이동근·윤소원. 1998.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에 관한 연구 -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지표를 중심으로 -, 환경영향평가, 제7권 제1호 : 93-107.
- 武内和彦. 1996. 環境時代の農村整備 - エコビレッジの提案, 株式会社 きょうせい.
-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 Oxford Univ. Press.
- OECD. 1993. Indicators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ncerns into Transport Policies. Environment Monographs, NO. 79, GD.
- UNCSD. 1995.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for Third Session, 1-28, April, E/CN.17.

接受 2000年 8月 30日